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한국조선해양, 선박 6척 · 3480억원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라이베리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들과 각각 91,000CBM급 액화석유가스(LPG)선 1척, 86,000입방미터 CBM급 LPG선 1척, 5만DWT급 PC선(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LPG 선들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하여 2023년 인도예정이며, 나머지 선박들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하여 2022년 인도예정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 Tsakos Shipping books box duo as Hyundai yards land \$308m in orders

현대미포조선이 수주 공시한 2,800TEU급 피더컨테이너선 2척의 발주처가 Tsakos Shipping이라고 보도됨. 주요 그리스 선사인 Tsakos 가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것은 2003년 3척의 피더컨테이너선을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Shipowners submit offers to Novatek on next round of Arc4 LNG carriers

러시아의 Novatek이 Arctic LNG 2 수출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선 시리즈 발주를 두고 선주들로부터 입찰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쇄빙형 LNG선(Ice-Class 1A Arc4 LNG Carrier)이 필요하며 5~7개 선주로 구성된 쇼트리스트를 추렸다고 보도됨. Novatek은 5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Asian yards line up floater bids for pair of high-pressure US Gulf projects

미국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 투입될 해양 FPU 2건의 수주를 두고 아시아 조선소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North Platte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경쟁에 참여중이라고 알려짐. (Upstream)

## 비수기인데도 LNG 운임 상승

LNG 운임이 오를 계절이 아닌데도 운임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됨. 1년 정기 용선료는 2011년 이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도됨. 2024년까지 글로벌 LNG 물동량은 연간 +4%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현대로템, 대구 광역철도 전동차 공급계약...699억원 규모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와 대구권 광역철도 전동차 18량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계약 금액은 699억2천820만원으로 작년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됨.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도됨. (연합뉴스)